

충절이 깊은 예의의 고장 예산

강 육 자유기고가

예 산군(禮山郡)은 충청남도의 가운데서 북서쪽으로 조금 치우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당진군, 아산시와 동남쪽으로는 공주시, 청양군과 서쪽으로는 홍성군, 서산시과 맞닿아 있다. 이 군의 동쪽에는 차령산맥이, 서북쪽에는 가야산맥이 뻗어내려 울을 둘러쳤고 금마천, 무한천이 삽교천으로 흘러들면서 그 사이의 기름진 예당평야를 적셔 주고 있다.

조선후기의 실학자 이증환은 《택리지》에서 내포 땅이 충청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했다. 이 내포 땅이 바로 지금의 예산으로 가야산 앞뒤의 열 고을에서 동쪽과 남쪽을 말한다. 예산은 옛날부터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이었다. 그래서 서울의 세도가들은 예산에 집과 농토를 두어 삶의 근거지로 삼았다.

예당평야를 중심으로 한 예산군에는 거의 모든 농산물이 풍성하다. 무한천, 삽교천, 금마천 같은 하천들뿐만이 아니라 예당저수지 등 관개 시설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다. 예산읍에서 6km 떨어져서 대흥면에 자리잡은 예당저수지는 1929년에 조선 농지 개발사업의 하나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해방된 뒤에 잠깐 중지되었다가 1963년에 완공했다. 이 저수지는 나라 안에서 단일 저수지로는 그 규모가 가장 크다. 길이가 8km쯤 되고 폭이 2km쯤 된다.

논농사 이외에도 밭에서는 여러 가지 채소가 잘 자란다. 특용 작물 재배단지에서는 쪽파, 파리, 고추, 오이, 상치, 열무 같은 것을 비닐하우스에서 철을 가리지 않고 가꾼다. 동쪽과 서쪽으로 몰려 있는 산지에서는 뽕나무가 잘 자라

누에치기를 많이 한다. 담배 재배도 많이 하는데 예로부터 '예산엽'이라 하여 이곳에서 나는 잎담배는 질이 좋기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이곳은 야트막한 동산이 많으며 과수원이 발달되어 있다. 예산군의 특산물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사과이다. 서울의 과일 가게의 진열장을 '예산 사과'가 많이 채울 만큼 예산 사과는 예로부터 명성이 높다. 이곳의 토질과 기후와 지형이 사과를 재배하기에 알맞아 사과의 품질이 뛰어나고 수확량도 많다. 오가면과 응봉면에 몰려 있는 과수원은 그 넓이나 생산량이 도 안에서 첫째를 차지한다.

예산읍으로부터 서쪽으로 20km쯤 떨어져 덕산면 사천리에 나지막하게 솟은 덕승산은 모습이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기암 괴석과 폭포로 절경을 이룬다. 소나무, 느티나무, 뽕나무 같은 것이 들어선 이 산의 울창한 숲 속에는 크고 작은 암자가 수없이 많은데, 이 중에 가장 유명한 절이 수덕사이다. 신라 진평왕 21년(599)에 지명 법사가 창건했고 원효대사가 중수한 이 절은 계룡산의 동학사와 함께 비구니들의 도량이다.

이 수덕사에 있는 덕승총림은 그냥 여승당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비구니들이 일정한 과정에 따라 수도하는 곳이다. 여기서 수도하는 비구니들은 보통 오백명이 좀 넘는다. 이들은 전국에 있는 사찰에서 뽑혀 온 여승들로서 수도 기간은 십년이며 초심, 발심, 자경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들은 밥짓고 빨래하는 데서부터 본경을 외우고 몇만 가지 계율을 익히기까지의 참으로 엄격한 규율 속에서 지낸다.

수덕사 경내의 주요 문화재로는 대웅전, 백련



당, 청련당, 조인정사와 삼층석탑, 미륵불 입상, 만공탑, 금선대, 진영각 등이 있다. 수덕사 대응전은 국보 제49호로 지정되어 있다. 앞 세간, 끝 네간의 단층 맞배집으로 그 형태가 장중하고 내부의 구조가 매우 섬세하다. 부석사의 무량수전과 흡사한 점이 많은 이 대응전은 막연히 고려시대의 건물로 알려졌으나 해방되기 바로 전에 한 수리 공사로 고려 충렬왕 34년에 세워졌음이 밝혀졌다. 한편 수덕사에서 6km 떨어진 곳에는 유명한 덕산온천이 있다. 1928년에 개발이 시작된 이 천연 온천은 수덕사를 찾은 관광객들이 돌아가는 길에 많이 들른다.

예로부터 예산에는 이름을 들날렸던 사람이 많이 태어났다. 덕산면 시량리가 고향인 윤봉길이 그랬고 신암면 용궁리가 고향인 추사 김정희가 그랬다. 민비 시해사건에 격분하여 고향에 내려와 항일운동을 펼치다가 1907년에 순국한 이남규는 대술면 방산리가 고향이고, 홍주 의병 모병장을 지냈고 광복회 사건의 주모자에 들던 김한중의 출생지는 광시면 신흥리이다. 또 예산에는 1906년에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가 붙잡혀 대마도에서 숨진 최익현의 무덤이 있다.

매헌 윤봉길의사는 1908년에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21세부터 독서회와 월례 계몽강연회를 개최하고 야학 월진회 조직 등으로 민족정신 앙양과 농촌 계몽운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윤봉길은 1930년 만주와 중국 청도를 거쳐 상해로 망명한다. 그는 세탁소 외교원, 모직공장 직공 같은 일을 하면서 김구의 지도를 받아 1931년에 한인 애국단에 가입했다. 바로 이듬해 4월 29일에 일본 천황의 생일 축하 및 상해 사변 전승기념식을 거행하는 홍구공원에서 도시락과 물통으로 위장한 폭탄을 들고 들어가 대 의거를 감행한다.

이 폭파 거사로 거류민단장과 상해 사령관 백천 대장이 죽고 일본 사람 수십명이 중상을 입었다. 윤봉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그 해 12월에 일본의 가나자와 형무소에서 25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했다. 그가 살던 낡은 집은 1972년에 사적 제229호로 지정되어 그 모습을 그대로 지닌 채 보존되어 있고, 그의 유품들은 보물 제

568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그의 영정을 모신 사당 추의사가 지어졌으며 기념관, 동상 같은 것도 세워졌다. 그리고 해마다 4월 29일에는 윤봉길의사를 기념하기 위한 '매헌문화재'가 열리고 있다.

'추사체'라는 독특한 서풍을 만들어낸 김정희는 정조 10년(1786)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대역섯살에 이미 글씨로 유명했으며 그대에 대학자였던 박제가에게 인정을 받아 그의 문하생이 되었다. 김정희는 글씨 뿐만 아니라 그림, 금석학에 능통했던 실학사상의 선구자였다. 스물네살 되던 해인 순조 9년에 동지부사로 연경으로 가는 아버지를 따라가서 중국 학자 응방강과 완 원을 만났는데 그 때에 78살이던 응방강은 그의 솜씨를 가리켜 "경술과 문장이 해동 제일"이라고 칭찬했다.

추사 고택은 김정희 가문의 종가로 신암면 용궁리에 자리잡고 있다. 이 집은 지방문화재 43호로 지정되어 있고 김정희의 증조모이자 영조의 딸인 화순옹주의 무덤과 무덤 앞 정려문이 지방문화재 45호로 지정되어 있다. 김정희의 옛 집은 80.5평의 주택으로 안채와 사랑채와 문간채와 사당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부지방과 영남지방에 있는 이른바 대가집의 표본으로 요즘엔 보기 힘든 옛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덕산면의 명산 가야산에는 남연군묘가 자리잡고 있다. 남연군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아버지로 이 묘 자리는 원래 가야사라는 절의 금탑 자리였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이 이곳에 묘를 쓰면 집권할 수 있다는 풍수지리학자의 말을 듣고 절을 불사르고 현종 12년(1846)에 수원에 있던 묘를 이장한 것이다.

예산은 이와 같이 오랜 역사 속에서 숭한 인물들을 배출한 아름다운 고장이다. 유서 깊은 임존성에서 바라보는 예당호의 그림 같은 아름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서해바다의 북쪽 삼교천호, 기름진 내포평야의 조망은 가히 절경을 이룬다. 대흥면, 응봉면 일대의 예당관광지는 우수한 밀도 높은 담수어 서식지가 되어 국내 제일의 낚시터로 손꼽힌다. 

